

## 자동차

###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점유율 상승 지속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5월 미국 산업수요 159만대 (-0.3% YoY, 이하 YoY), SAAR 1,740만대 (+4%)**

미국 산업수요는 19년들어 다섯 달 연속 YoY 감소 기록했다 (1월 -1%, 2월 -3%, 3월 -3%, 4월 -2%). 그러나 올해 들어 처음으로 SAAR가 YoY 반등 실현 및 시장기대치 상회 수치가 기록되며, 올해 5년 연속 연간판매 1,700만대 이상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되었다.

자동차 수요 동행지표인 소비심리지수 (Conference Board)는 5월 134.1로 전월 129.2, 전년동월 128.8 대비 개선됐으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시장수요 추이는 1) 높은 소비심리지수, 낮은 실업률 등의 우호적 판매환경과 2) 평균 차량 구매가격 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요인이 충돌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차 6.8만대 (+3.6%), 판매점유율 4.3% (+0.2%p), 인센티브 \$2,562 (-8.7%)**

10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6개월 연속 YoY 점유율 상승, 9개월 연속 YoY 인센티브 감소 기록했다. 제네시스 판매회복 (+115%)과 SUV 판매호조 (+15%)가 판매 및 점유율 증가를 견인했다.

신차 출시를 앞둔 쏘나타 (8,599대, -20%)가 감소했으나, 코나 (7,197대, +42%), 쏘타페 (13,807, +29%)와 같은 신형 SUV 판매증가가 전체 판매증가를 이끌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E-segment SUV 쉐레세이드 소매판매는 6월부터 일부 집계될 예정이다.

**기아차 6.0만대 (+1.0%), 판매점유율 3.8% (+0.05%p), 인센티브 \$3,269 (-14.7%)**

8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10개월 연속 YoY 점유율 개선, 7개월 연속 YoY 인센티브 감소를 기록했다.

니로 (-9%), 쏘렌토 (-19%) 등 기존 SUV가 부진했으나, 신형 쏘울 (10,713대, +8%), 텔루라이드 (6,273대) 등 신규 SUV 판매호조로 전체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 2월 첫 판매가 시작됐으며, 2월 315대, 3월 5,080대, 4월 5,570대, 5월 6,273대로 MoM 판매확대 기록 중이다.

현대차 · 기아차의 SUV 신차효과는 19년 내 지속될 전망이며, 양사가 기록 중인 YoY 판매 및 점유율 개선 추이 또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